

제 목	나의 나이대와 나이테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 번	2021****	이 름	김*림

화창한 날씨,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길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내심 짜증이 나고 아까 마신 음료수가 소화되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지는 불상사가 생겼다. 계속 한숨만 쉬다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에 창 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멍을 때렸다.

문득 바라본 나무들은 햇살을 받아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의 나와 아빠가 떠올랐다.

커다란 나무 같던 우리 아빠는 춘천에 위치한 산림청에서 근무하시다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격적으로 임업 사업을 시작하셨다. 지금의 내 나이대였던 20대 시절의 아빠는 맑은 공기 가득한 나무들 사이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보았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휴양림에 온 아이들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쓰이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를 쥐고 있지 않았다. 흠과 교감하고 나무와 대화하며 서로가 술래가 되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던 아빠는 휴무날이면 나와 동생들을 데리고 갔다.

다른 친구들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놀이공원이나 명동 시내에 나가 돈가스를 먹고 돌아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너는 뭐 했어?”라고 물어보았고 내 차례가 되자 나는 휴양림이라고 답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법한 곳을 안 가보았냐며 별난 사람 취급하는 아이들은 나랑 놀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꺼냈다. 학교 끝나고 영영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깜짝 놀란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내 얘기를 들은 아빠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내 자리를 떠났고 “엄마 다음번에는 우리도 놀이공원 가면 안돼?”라며 울먹거렸다. 잠에 들 때도 고사리 같은 손을 맞대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동생들이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 나도 우리 반 애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박수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심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휴양림에 오게 되었다. “이게 뭐야 아빠 미워”라는 생각이 들어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다. 목이 떠나가라 울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똑 그치라는 엄마의 다그침에도 멈출 생각을 못했다.

어느새 눈물을 그치자 아빠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내 손을 잡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그렁한 눈을 잠시 비웠는데 싱그러운 초록잎들이 무성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빠는 땀을 흘리다 이내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나무 같은 존재라서 아무리 걸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생기면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뿌리라고 하셨다. 뿌리는 나만이 내면에서 키워낼 수 있다는 말. 게다가 사람의 밑바닥은 산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평소 행실과 인성으로 쉽게 판가름 가능하지만 울퉁한 나무는 아무리 베려해도 그 뿌리까지는 안된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놀랐다. 내 표정을 보았는지 “네 이름이 왜 [] 알아?”라며 [] 자를 써서 ‘숲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며 보듬어라는 뜻’이었다. 나무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 항상 중심에서 배려를 실천해 귀감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이었다.

어느덧 커다랗게 보였던 아빠라는 나무는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인다. 이제는 내가 훨씬 커지자 주변

사람들은 “언제 이리 컸니”라며 말씀하십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어릴 때 너희들 놀이공원 많이 못 데리고
가 준 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절대 아니라고, 마음 쓰시지 말라며 어린 시절 휴양림에서의 추억은 내게
자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는 엄청 크고 멋진 영웅 같았던 부모님의 나이가 이제는 한 없이 작고 어렸던 날이었구나 싶어
어 두 분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루를 살아내고 이만큼 또 자라 있던 나는 어느덧 부모님의 나
이테와 맞바꾼 나의 나이대가 올곧게 자라 풍성한 잎들을 자랑했다. 먼 훗날 내 아이에게도 잠시라도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기 위해 다짐해 본다.



(출처 직접촬영)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